



Universiteit
Leide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의 한국학 = **The Evolu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Netherlands: 역사적 발전 과정 및 현황 분석 =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Breuker, R.E.; Nam, A.R.

Citation

Breuker, R. E., & Nam, A. R. (2024). 네덜란드에서의 한국학 = The Evolu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Netherlands: 역사적 발전 과정 및 현황 분석 =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The Korean Cultural Studies = 한국문화연구*, 46, 469-489.
doi:10.17792/kcs.2024.46.469

Version: Publisher's Version

License: [Creative Commons CC BY-NC 4.0 license](#)

Downloaded from: <https://hdl.handle.net/1887/4196983>

Note: To cite this publication please use the final published version (if applicable).

네덜란드에서의 한국학: 역사적 발전 과정 및 현황 분석 -레이던대학교를 중심으로-

Remco Breuker*, 남 애 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레이던대학교 한국학에 대한 역사적 개괄
- III. 레이던대학교 한국학 연구의 동향
- IV. 레이던대학교 한국학 교육 현황
- V. 레이던대학교 한국학의 미래: 도전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네덜란드는 한반도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서양인 최초의 귀화인으로 알려진 박연(본명 Jan Janse Weltevrete, 1595-미상)이 네덜란드인이었고,

* 램코 브뤼커,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 정교수 r.e.breuker@hum.leidenuniv.nl/
南厓里,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 한국어 프로그램 담당 교수 a.r.nam@hum.leidenuniv.nl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469>

한국에 관한 서양인 최초의 저술인 『하멜표류기』의 저자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 1630-1692)도 네덜란드인이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지역 최초의 한국학 강좌가 시작된 곳도 네덜란드의 레이던대학교로, 그만큼 네덜란드가 유구한 한국학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학 강좌가 1947년 처음 개설되고 한국학이 1980년대 후반 학부 독립 전공으로 자리잡은 레이던대학교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에서 한국학 연구 및 한국학 전문가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케이팝(K-pop)을 비롯한 한국 대중 문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몇몇 타대학에도 한국 관련 강의 혹은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으나¹⁾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내에서(혹은 벨기에까지 아울러) 본격적인 한국학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레이던대학교가 유일하다.

이에 본고는 레이던대학교에서의 한국학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현재 한국학과 소속 학자들의 연구 동향 및 한국학 학석사 과정의 운영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레이던대학교에서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미래를 조망해 보겠다.

II. 레이던대학교 한국학에 대한 역사적 개괄

앞서 언급한 헨드릭 하멜은 한반도에 대한 최초의 유럽인 목격담을 작성하여 17세기 유럽에서 조선에 대한 경미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 하멜의

1) 2010년대 중반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호로닝언대학교에 한국인 경제학자 최선경이 임용되어 한국 관련 강좌 및 한국(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도를 맡고 있다. 로테르담응용과학대학교의 아시아무역경영학과는 2010년대 중반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였다가 2022년부터는 한국어를 정규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하였다.

2) Hamel, Hendrik, and B. Hoetink. *Verhaal van Het Vergaan van Het Jacht De Sperwer En van Het Wedervaren Der Schipbreukelingen Op Het Eiland*

일지와 그의 선원들의 경험은 니콜라스 비첸(Nicolaes Witsen, 1641-1717)의 연구를 필두로 한국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체계적인 한반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³⁾ 상인, 학자, 암스테르담 시장이자 레이던대학교 졸업생이었던 비첸은 다양한 출처에서 조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첸은 또한 1667년, 하멜과 함께 네덜란드로 돌아온 하멜의 선원 두 명과 길게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의 책은 완성되긴 했으나 제대로 출판되지는 않았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Quelpaert En Het Vasteland van Korea (1653-1666) Met Eene Beschrijving van Dat Rijk. Vol. 18. M. Nijhoff, 1920; Roeper, V. D., Boudewijn Walraven, and Jean-Paul Buys. *Hamel's World: A Dutch-Korean Encount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Boom Koninklijke Uitgevers, 2003; Chi Myöngsuk (2007): "Repositioning Hamel: The linguistic significance of the first European cross-cultural account of Chosön". In: Breuker, Remco E. (ed.): *Korea in the Middle. Korean Studies and Area Studies*. (CNWS publications: 153). Leiden: CNWS Publications, pp.97-117.

- 3) 비첸의 연구가 네덜란드 한국학의 시초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비첸의 조선에 대한 설명과 역사 및 언어에 대한 기술은 조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니었으며, 동시대에 이어진 후속 작업도 없었다. 비첸이 네덜란드 한국학의 아버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명숙의 연구를 참조한다: Myong-suk Chi, "Nicolaas Witsen as a western Pioneer of Koreanology. Reflections on Frits Vos's study 'Master Eibokken on the Korean language: Supplementary Remarks to Hamel's Narrative', in Naarden, Bruno, Tom van Brederode, Tjeerd de Graaf, Wim Honselaar, Janine Jager, Cecilia Ode, Lisa van Schaik, and Nicotine van der Sijs". *The Fascination with Inner Eurasian Languages in the 17th Century. The Amsterdam Mayor Nicolaas Witsen and the Collection of 'Tartarian' Glossaries and Scripts*. Amsterdam: Pegasus, 2018.
- 4) Witsen, Nicolaes. *Noord En Oost Tartarye, Ofte Bondig Ontwerp van Eenige Dier Landen En Volken, Welke Voormaels Bekent Zijn Geweest : Beneffens Verscheide Tot Noch Toe Onbekende, En Meest Nooit Voorheen Beschreve Tartersche En Naaburige Gewesten, Landstreeken, Steden, Rivieren, En Plaetzen, in de Noorder*. 2e dr. Amsterdam : François Halma, 1705.

고 비첸의 작업은 20세기 전반까지 네덜란드에서 한반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확립하려는 유일한 시도로 남게 되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 덕분에 네덜란드 학자들(혹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학자들)은 조선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난파된 한국 어선의 선원들과 일본 어부들과의 간헐적인 접촉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일본(Nippon)』의 그림 담당 예술가 가와하라 케이가에게 그들을 실감나게 그리게 하였다.⁵⁾ 그러나 지볼트의 전 조수였던 요한 요제프 호프만(Johan Joseph Hoffmann, 1805-1878)이 1855년에 레이던대학교에서 중국 및 일본학의 초대 공식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연구 분야에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프만은 초기 학문적 관심 중 일부를 조선과 조선어에 할애하였다.⁷⁾

5) Siebold, Philipp Franz von. *Nippon :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und dessen Neben- und Schutzländern jezo mit den südlichen Kurilen, Krafto, Koorai und den Liukiu-Inseln : nach japanischen und europäischen Schriften und eigenen Beobachtungen*. Der Verfasser, 1832; R.E. Breuker & 박진, 「Siebold의 보고서 'Nippon' 중 조선 관련 저술」,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7호, 2006 참고.

6) Kuiper, Koos (2017). *The Early Dutch Sinologists (1854-1900): Training in Holland and China, Functions in the Netherlands Indies*. Leiden: Brill. p. 1020; Vos, Frits; Eschbach-Szabo, Viktoria (2009) 1996. "Hoffmann, Johann Joseph". In Stammerjohann, Harro (ed.). *Lexicon Grammaticorum: A Bio-Bibliographical Companion to the History of Linguistics* (2nd, Revised and Enlarged ed.).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p.667.

7) Hoffmann, Johann Joseph (1840): *Das 千字文 Tsiän dsü wen oder Buch von tausend Wörtern, aus dem Schinesischen, mit Berücksichtigung der koraischen und japanischen Übersetzung, ins Deutsche übertragen*. Leiden. Siebold, Philipp Franz von (1841): *Isagoge in Bibliothecam Japonicam et studium literarum japonicarum*. Lugduni-Batavorum: apud auctorem; Siebold, Philipp Franz von & Hoffmann, Johann Joseph (1845): *Catalogus librorum et manuscriptorum Japonicorum a Ph. Fr. de Siebold collectorum*,

이 시기 일본과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수십 년 동안 레이던에서 당시 동양이라고 불리던 지역의 연구를 특징지었고, 사실상 한반도 연구의 학문적 제도화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프리츠 보스(Frits Vos, 1918-2000)는 1946년 레이던대학교 일본학 강사가 된 후, 1947년부터 한국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보스는 유럽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이었다.⁸⁾ 그는 UN 산하 네덜란드 연대의 일원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레이던에서 한반도 연구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1958년 그가 정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직책은 일본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교수로 공식 명명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학문 전통의 쇠퇴를 의미했다.⁹⁾ 1958년부터 한국학은 레이던에서 정규 학문 분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¹⁰⁾

annexa enumeratione illorum, qui in Museo Regio Hagano servantur. Lugduni-Batavorum: apud auctorem. Sven Oosterkamp은 지볼트와 호프만의 학문활동을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다: Osterkamp, Sven. "A Brief History of Western Knowledg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Script— from the Beginnings to Pallas (1786/87-89)." *Studia Orientalia Slovaca* 9, No. 1 (2010): 7-43; Osterkamp, Sven. "Philipp Franz von Siebold's Korean Studies: Focusing on His Sources and Publications on the Korean Language," n.d.; Osterkamp, Sven. "Selected Materials on Korean from the Siebold Archive in Bochum—Preceded by Some General Remarks Regarding Siebold's Study of Korean."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33 (2009): 187-216
참고.

- 8) 보스의 생애, 경력 및 업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를 기리기 위해 작성된 기념논문집을 참고한다: De Poorter, Erika, et al. *As the twig is bent... : essays in honour of Frits Vos*. Gieben, 1990.
- 9) 취임 강연에서 보스는 일본과 한반도를 나란히 놓고 보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혔다: Vos, F. *Volken van één stam? : enige beschouwingen over de problemen van een Koreaans-Japanse cultuur- en taalverwantschap*. Mouton, 1959.
- 10) Vos, F. *Van keurslijfjes en keesjes, bosschietters en lijfschutten : onze voorouders in Japan en Korea en het begin der Japanse en Koreaanse*

레이던에서의 동아시아 연구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종교적, 문학적 텍스트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졌다. 사용된 주요 방법론은 고증학(philology)이었으며, 한국학의 경우 이는 언어(한국어, 고어, 한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 전후 레이던(및 타대학)에서 한국학의 또다른 특징은 일본학 및 중국학과와의 복잡다단한 연관성이었다. 1961년 처음 개설된 한국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학 또는 중국학 학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실질적으로 이는 한국학 졸업생들이 현대 일본어(당시 중국학 전공자에게도 필수)와 한문에 능숙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한국의 고전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까지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고증학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는 것은 레이던대학교 아시아 연구 학부의 특징이었으며 이는 외국 학생들도 끌어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해외 한국학 선도 학자들이 레이던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예: 마르티나 도이츨러 Martina Deuchler와 윌리엄 헨손 William Henthorn), 혹은 타대학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프리츠 보스로부터 공동 지도를 받기도 했다.

프리츠 보스는 여러 언어(주로 영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다수의 책, 논문 및 번역본을 출판했다. 보스의 연구 성과는 언어, 역사, 문화(그 다양한 형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정교한 고증학의 적용이라는 방법론적 특징에 있었다. 그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미완성된 『삼국유사』 번역으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레이던에서 수행된 한국 연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1954년과 1955년에 그는 독일 학술지 『오리엔스 엑스트레무스』에 2회에 걸쳐 긴 논문을 발표했다.¹¹⁾ 이는 상당

studiën in Nederland. Universitaire Pers Leiden, 1980.

11) Vos, Frits. "Kim Yusin, Persönlichkeit und Mythos: Ein Beitrag zur Kenntnis der altkoreanischen Geschichte (1. Teil)." *Oriens extremus*, vol. 1, no. 1, 1954, pp. 29-70; Vos, Frits. "Kim Yusin, Persönlichkeit und Mythos: Ein Beitrag zur Kenntnis der altkoreanischen Geschichte (2. Teil)." *Oriens*

부분 『삼국유사』에 기초한 것으로,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삼국유사』의 완역본 출판을 결심하고 1960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생각을 구체화한 듯하다. 1983년 은퇴 전후로 그는 여러 해에 걸쳐 번역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동시에 여타 주제에 관한 다수의 책, 논문, 번역본을 출간했다. 그는 『삼국유사』 대부분의 번역을 마쳤지만, 필요한 주석 작업은 거의 시작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애 동안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할 것을 직감한 그는, 그의 뒤를 이어 한국학 교수직에 오른 제자 보데윈 왈라벤(Boudewijn Walraven)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보스가 은퇴한 후, 한국학과는 보데윈 왈라벤과 일본 및 한국 자료 사서였던 알라드 올로프(Allard Olof, 일본학자이자 한국학자로서 고어 및 고어의 영어 번역에 대한 연구를 출판했으며,¹²⁾ 보데윈 왈라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인물)가 이끌었다. 라메르스-신 여사는 한국어 회화를 가르쳤다. 왈라벤의 한국학에 대한 헌신은 1989년에 독립적인 한국학과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 해부터 학생들은 일본학이나 중국학의 학사 학위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도 학부부터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게 되었다.¹³⁾

1994년, 레이던대학교는 마침내 독립적인 한국학 교수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왈라벤의 취임 강연 제목은 “한국의 역사들”로, 이는 그의 지도하에 학과가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었다.¹⁴⁾ 레이던대학의 저명한 역사가

extremus, Vol.2, No.2, 1955, pp.210-36.

12) Olof, Allard M. “The Story of Prince Allakkuk: Wörin sökpo vol. 8.” *Korea Journal* 23.1 (1983): 13-20; Olof, Allard. “The Wörinch'on'gangjigok: Song of the Moon Reflected on a Thousand Rivers.” (2009); Wilt L. Idema and Allard M. Olof. *The Legend of Prince Golden Calf in China and Korea*. Cambria Press, 2021.

13) 왈라벤 교수의 생애, 경력 및 업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Breuker, Remco, and Boudewijn Walraven. *Korea in the Middle : Korean Studies and Area Studies : Essays in Honour of Boudewijn Walraven*. CNWS Publications, 2007.

14) Walraven, Boudewijn. *Koreaanse geschiedenissen*. Rijks Universiteit

요한 후이징아(Johan Huizinga, 1872-1945)를 의식적으로 언급하며, 왈라번은 한국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AKS) 지원 연구 프로젝트¹⁵⁾와 *Korean Histories*라는 학술 저널의 창간으로 이어졌다.¹⁶⁾ 이 저널은 왈라번의 취임 강연과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후이징아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한국 역사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왈라번의 지도 아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가 2011년에 은퇴할 무렵에는 학부 신입생이 기존 연간 두세 명에서 약 스무 명까지 늘어났다. 근대역사가 쿤 데 쿵스테르(Koen de Ceuster)가 1995년 임용되었고,¹⁷⁾ 한국어 교육은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과 조선의 만남에 대해 출판한 바 있는 지명숙이 담당했다.¹⁸⁾

Leiden, 1995 참고.

- 15) 한중연 지원 연구의 개요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를 사회적 과정으로: 비전통적 한국 역사쓰기” 프로젝트는 한국역사의 서술과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목표로 한다. (……) “역사를 사회적 과정으로”라는 학술주제를 내건 이 프로젝트는 한국 역사가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어떻게 생산, 재생산, 서술되는지의 과정과 그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에 참여하여 현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해간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를 그러한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 내리면서, 기존역사연구에서 역사연구자료로 인식되어 정통성을 가지는 것들을 재검토 내지 재해석하며, 무엇보다 그기존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비전통적 자료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16) *Korean Histories*은 2009년부터 2013까지 발간이 됐지만 2013년부터 재정 지원 문제로 인해 발간이 중단되었다. 2024년 9월부터 새롭게 정비를 해서 재발간될 예정이다.
- 17) 쿤 데 쿵스테르의 박사논문은 윤치호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했고, 2023년 은퇴했다(<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koen-de-ceuster/publications#tab-4>).
- 18) 지명숙 & 보테윈 왈라번, 『보물선은 어디에?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재임 중 왈라번은 그의 제자인 렘코 브뢰커와 함께 『삼국유사』 번역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브뢰커는 2006년에 고려 시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 2011년 왈라번의 후임으로 한국학 정교수가 되었다. 20) 『삼국유사』의 영어 번역, 주석 및 서문 작업은 마침내 2024년에 완료되었다. 21) 이는 레이던대에서 한국학 정교수직을 이어간 3세대에 걸친 학자들의 공동 작업이며, 레이던 한국학 전통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업적이다. 보스, 왈라번, 브뢰커 모두 고증학자이며, 이 작업은 그동안 학문에 있어서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왈라번과 브뢰커는 대학원생 시절 한국에서 수년간 수업을 듣고 연구를 수행했다. 22) 왈라번은 인류학적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문화역사학자이고, 23) 브뢰커는 고려 시대 역사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과 같은 현대 문제도 연구하고 있다. 24) 레이던의 『삼국유사』 번역은 강한 고증학적 기술과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삼국유사』와 같은 작품이 지어진 지 수 세기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후이징아에게 영감을 받은 ‘역사는 또한 사회적 과정’이라는 개념은 학술

교류사』, 연세 대학교 출판사, 2003. 지명숙은 2018년 은퇴했다.

- 19) Breuker, R. E. *When Truth Is Everywhere: The Formation of Plural Identities in Medieval Korea*, 2006, pp.918-1170.
- 20) Breuker, R. E. *As If It Matters: The Past in the Present in Korean and Elsewhere*. 2012 참고.
- 21) Iryōn, Breuker, Remco E., Koh, Grace, Vos, Frits, and Walraven, Boudewijn. *Vestiges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A Translation of the Samguk Yusa*. Library of Korean Classics.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출판 예정.
- 22) 왈라번도 브뢰커도 서울대학교 소속이었다. 왈라번은 국사학과 및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했으며, 브뢰커는 고려사 전공으로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유학하였다.
- 23)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boudewijn-walraven/publications#tab-4>
- 24)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medewerkers/remco-breuker/publicaties#tab-4>

지 “Korean Histories”의 창립 원칙이었다. 이 개념은 쿤 데 콰스테르의 한국의 공공 기억에 관한 논문이나 브뢰커의 혼요십조 연구와 같은 교수진들의 연구출판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이던의 학문적 과거와의 연계는 고증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유지되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고증학의 중요성은 다소 흐려졌지만, 제대로 훈련된 한국학자가 요하는 기술적 전문성은 여전히 중요시된다. 동시에 탈식민주의 담론 등의 도입을 통해 레이던 학풍에 보다 명시적인 도덕적 차원이 추가되었다.

III. 레이던대학교 한국학 연구의 동향

보테윈 왈라번의 은퇴는 유럽에서 K-pop의 도래와 시기가 맞물렸다. 한국학 전공 신입생 수는 2011년 20여명에서 2010년대 후반 80여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 추세는 2020년대 들어 다소 안정화되었다. 학생 수의 증가는 교직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레이던의 한국학은 역사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테윈 왈라번과 쿤 데 콰스테르의 은퇴 및 신진 교원 충원은 연구 분야의 다각화를 가져왔다.

브뢰커는 여전히 고려 역사와 현대 북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엘머 벨드캄프(Elmer Veldkamp)는 한국 및 일본 인류학자로서, 사람들이 일상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집단적 및 개인적 과정을 연구한다.²⁵⁾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은 현대 한국을 연구한다. 그는 북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들과의 구조화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대 북한 사회, 정치,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외 집단의 표현 방식에 관심이 있으며, 현대 한국 방송 매체에서 북한 주민과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25)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medewerkers/elmer-veldkamp/publicaties#tab-4>

니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글을 쓴다.²⁶⁾

남애리는 한국학과와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데, 주 연구 분야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제 2언어 습득이다. 동기, 태도, 자기효능감 등 외국어 학습자의 정서적 요인과,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을 비롯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관심이 많다. 현재, 대학 입학 전 청소년기 동안의 한국어 학습 동기 및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⁷⁾

박진희의 연구 주제는 한국어 구문론,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어 제2언어 습득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는, 남한 언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담론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두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정상회담 보도를 비교하여 한국의 진보와 보수 정치의 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²⁸⁾

최원경의 연구 분야는 한문으로 쓰인 18세기와 19세기의 한국 고전 문학이다. 그는 이 시기의 한국 지성사와 사회 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현대와 전근대 시대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원경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한문 한국문학과 한국학을 가르쳤다. 한국 고전 문학과 철학 교육은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비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학 교육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²⁹⁾

보니 틸랜드(Bonnie Tilland)는 현대 한국의 가족, 젠더 및 미디어를 인류학적 및 학제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레이던대에 합류하기 전,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³⁰⁾

26)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christopher-green/publications#tab-4>

27)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ae-ree-nam/publications#tab-4>

28)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jin-hee-park/publications#tab-4>

29)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wonkyung-choi#tab-1>

한국학과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스티븐 데니(Steven Denney)는 동아시아 문제와 한반도를 전문으로 하는 비교정치학자이다. 그의 핵심 연구 분야는 이주와 거버넌스, 국가와 민족주의, 국제 기구이다. 그의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와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비수치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혼합방법론도 사용한다.³¹⁾

마지막으로, 한운애는 한국학과에서 강의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학 소속이다. 한운애는 도시 및 디지털 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인문 지리학자다. “오늘날의 도시에서 어떻게 착취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허슬링이 생활 방식이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³²⁾

지난 수십년 동안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십 명의 젊은 박사들을 배출해 왔다.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박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라헬 플라센(Rahel Plasse)은 10세기 고려 외교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이다. 디지털 인문학 한국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인 아론 반 데 폴(Aron van de Pol)은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식민지 시대의 인쇄소를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 중이다. 플로라 스미트(Flora Smit)는 현대 한국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K-pop 과 아이돌 산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

IV. 레이던대학교 한국학 교육 현황

네덜란드의 대학교는 1980년대 6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가 바뀌었고, 2001년에는 3년제로의 학제 개편이 있었다. 레이던대학교 내부적으로도

30)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medewerkers/bonnie-tilland/publicaties#tab-4>

31) 연구 성과: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staffmembers/steven-denney/publications#tab-4>

32) 연구 성과: <https://lse.academia.edu/YoonaiHan?nbs=user>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문대 직속 학과에서 2010년대 초 인문대 산하 지역학부인 LIAS 로 한국학과의 소속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LIAS(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학의 허브로, 해당 지역의 언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학석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학과를 비롯한 LIAS 소속 학과들은 학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섭적 접근을 지향하는 한편, 전공 지역의 언어, 문화,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더불어 연구 도구로써 전공 언어 활용을 가능케 하고자 전공 지역의 언어 능력 배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레이던대학교에서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교육은, 레이던캠퍼스의 한국학 학부 과정, 레이던캠퍼스의 동아시아학 석사 과정, 헤이그캠퍼스의 국제학 학부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앞서 언급된 9명 외에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김미래와 박미영까지, 총 11명의 교수진이 교육에 관여한다. 이에 더해, 매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및 외국어특수대학원 한국어 교육 석사생 2명이 방문 인턴 제도를 통해 레이던과 헤이그의 학부 과정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다.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 학부는 3년 과정으로, 매 학기 30학점씩 총 18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³³⁾ 1-2학년 첫 4학기 동안, 학생들은 매 학기 이수 학점의 절반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 내용 중심 수업을 수강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다. 1학년 교과 과정은, 한국과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술적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대학에서 필요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어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말하기, 듣기, 읽기,

33) 2023-2024학년도 기준, 한국학과 학부 교과 과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환 학생 제도 변경이나 언어 교과 과정 개편, 교수진 변동 등에 따라 매 학년도 개설 과목은 다소 유동적이다(<https://studiegids.universiteitleiden.nl/en/studies/9689/korean-studies#tab-1>).

쓰기 통합 교육을 통해 한국어 사용자로서의 탄탄한 언어적 기반을 쌓는 것과 더불어 문화간 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2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은 한국어 집중 연수를 위한 단체 교환 학생 제도를 포함하는데(15학점), 약 70-80% 가량의 학생이 한국 소재 대학 부속 어학당의 10주 일반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나머지 학생들은 본교에서 한국에 간 학생들과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듣는다. 언어 수업 외에 15학점의 수업은 레이던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2학년 2학기는 그간 수강한 수업들과 직간접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시기이다. 특정 주제나 분야에 대한 소규모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한국학 연구 관련 관심사를 심화시켜 나간다. 이에 맞춰 4학기 한국어 수업은, 3학기까지의 한국어 수업이 일반 의사소통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관심사와 연구를 지원하도록 다양한 실제 언어 자료에의 노출과 학문 목적 읽기 중심으로 운영된다. 3학년의 경우 총 60학점 중 30학점은 부전공이나 인턴십으로 채우게 되며, 나머지 30학점 중 5학점은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따른 한국어 수업이고 그 외 25학점은 졸업 논문과 관련된 수업 및 논문 학점이다. 학생들은 교수진의 전문 분야에 따라 크게 역사 및 고전 트랙, 현대 한국 트랙(사회학, 여성학, 정치학 등 포함), 문화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졸업 논문을 쓴다.

대학원 과정은 LIAS가 직접 모든 소속 학과의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 1년간 60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는 동아시아학 석사 과정과, 2년간 120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는 한국학 연구 석사 과정(research master)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구 석사 과정의 경우, 총 4학기 중 2학기과 3학기 1년 간은 한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진행한다. 석사 과목 중 한국어 과목인 고급한국어읽기(10학점)와 주제읽기(전공 필수 10학점, 전공 선택 5학점)는 120학점 연구 석사생들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이나, 60학점 동아시아학 석사생들에게는 전공 선택 과목이다. 공통 필수 과목인 동아시아학개론 외 나머지 과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 수강하는데,

2023-2024학년도에 한국 중심 수업 혹은 한국학과 소속 교수가 가르친 수업은 세 과목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학과 교수진이 한국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헤이그캠퍼스 인문대 소속 국제학 3년 학사 과정이 있다. 국제학 전공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주 관심 지역과 전공 외국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어도 17개의 외국어 중 하나다. 한국어를 전공 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은 한국어1(10학점, 주 3회 6시간), 한국어2(10학점, 주 3회 6시간), 한국어3(5학점, 주 2회 4시간)을 1-2학년에 걸쳐 수강한다. 3학년 1학기에 교환 학생, 인턴십 등의 자을 학기를 보낸 후, 3학년 2학기때 한국어의 실제(Korean in Practice)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연구나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 한국에 대한 졸업 논문을 쓰는 학생의 경우 한국학과 교수진으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023-2024학년도에는 한국학과 교수진이 한국어 외 헤이그캠퍼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레이던캠퍼스의 상황과 조율하여 여력이 있을 경우 헤이그캠퍼스 수업에 참여한다.

레이던캠퍼스 한국학과 학부의 경우 지난 4-5년간 70여명의 신입생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급 및 기타 사유로 2학년 진급을 못하는 학생들이 보통 30-40%에 이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전체 재학생 수는 120-150명 사이로 추산된다. 학생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 국적 학생들이다.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거나 부모가 입양인인 한국계 학생이 간혹 있지만 극히 소수이다. 헤이그캠퍼스 국제학의 경우는, 2010년대 초 헤이그캠퍼스가 처음 생겼을 당시 한국어 선택 학생이 1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40-50여 명에 이른다. 헤이그캠퍼스의 국제학에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어 수업도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수강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학부 재학생의 증가에 비하면 한국학 석사 과정생 수는 다소 적은 편이다. 최근까지도 매 학년도 신입생 수의 변동이 큰데, 60학점 동아시아학 석사와 120학점 한국학 석사를 합쳐 대략 6-12명이 매년 입학한다. 석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세분화된 연구 관심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다양한 한국학 관련 과목을 제공하지 못해 온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석사생 대부분은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 졸업생들이지만, 헤이그캠퍼스 국제학 졸업생이나 타유럽 국가에서 한국학으로 학사를 받은 학생들도 간혹 입학한다.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는 정규 교육 과정에 외에도, 대학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기관 및 현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네덜란드 내 한국학의 가시성을 높이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 더 나아가 네덜란드 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부터 대외 행사로, 대사관, 한국 내 대학, 현지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네덜란드 전역 대학생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대회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 기업, 대학 외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이 협업해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외에도 레이던대학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네덜란드 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과 내부적으로는, 재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네덜란드 현지 체류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 학기 개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 및 한국인 봉사자와 함께하는 소그룹 한국어 회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도서관에 한국어 학습자 코너 설치를 요청해 일반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어 만화책, 그림전래동화책 및 토픽 수험서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을 돕고 있다. 교내 및 방문 한국학 연구자들의 한국학 관련 연구를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한 달에 한 번씩 한국학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학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키우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대학 평가 NSE(Nationale Studenten Enquête) 보고에 따르면,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는 평가 항목 중 취업 관련 항목만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학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연구 중심 대학 인문대 전반의 문제인데, 이에 인문대에서는 취업데이 행사

를 개최하고 수업에 실용 스킬(transferable skill)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하는 등 나름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한국학과 자체적으로도, 대사관, 벨기에 한국문화원, 코트라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기관이나 현지 기업에서의 인턴십과 취업 기회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학과 학생회를 통해 네덜란드 내 진학, 유학, 한국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택한 졸업생들이 재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한국 기업 설명회나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등의 행사를 여는 등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최근 현지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2023-2024학년도부터는 3학년 한국어 선택 수업으로 비즈니스 한국어도 개설하는 등 증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 레이던대학교 한국학의 미래: 도전과 전망

레이던의 한국학은 변화하는 상황과 지역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적응해 왔다. 타자를 연구하는 오리엔탈리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내 담론, 한국어 사용, 한국인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구해 왔다.³⁴⁾ 2022년 전반까지 모든 재학생들이 서울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언어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였다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³⁵⁾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한국과 한국어를 아는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34) 한국 밖에서 한국학의 활력과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35) 2022년 후반부터는 행정상의 이유 혹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약 20-30%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언어 집중 연수에 참가하는 대신 본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해서 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 한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네덜란드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학과의 위상은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극우 정치 성향의 내각이 출현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학문적 지식 구축에 투자하는 것은 극우 정부가 쉽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재정 지원과 학과의 독립성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학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 그리고 유럽에도 절대 다수의 지원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AK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던의 한국학과는 AKS 지원 프로젝트인 “역사를 사회적 과정으로”가 종료된 이후 이러한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학과의 입장은 외부 지원금(예: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의 지원금)이 학과의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계속 취할지 여부는 학과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학 연구 프로그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예로, 북한 이탈 주민을 학문적 실천에 진지하게 통합하려는 브뢰커와 그린의 오랜 노력은 심각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 지원금 확보나 연구 지속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EU 내 북한 강제 노동에 대한 연구는 관련된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판물이 독립 법률 사무소의 법적 분석을 거쳐야 했다. 요컨대, 학문적 연구도 사회적 과정이며 이는 사회로부터의 반응과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학자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도전 과제이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학은 다른 많은 학문 분야보다 더 극심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최근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학생 수의 증가는 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기대와 대학에서의 학문적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현대적인 주제에 편중되는 추세도 관찰된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식을 경우, 한국학을 공부하려는 학생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또는 북한과의 관계가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까?

앞서 언급한 도전 과제들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 중 하나는 단일 국가(혹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두 개의 국가) 기반의 지역학 프로그램이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문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나 아시아 전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의 통합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가해지는 압력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학제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커리큘럼 측면에서도 더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국학이 더 이상 전통적인 지역학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연구와 같은 더 큰 틀 안에서 한국학의 독립성을 유지해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THE EVOLUTION OF KOREAN STUDIES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REMCO BREUKER, AEREE NAM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highlighting the contributions of key scholars and the evolution of the curriculum. The Korean Studies program at Leiden, initially focused on philology, has expanded its scope over the decades to include variou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reflecting broader academic trends and Korea's growing global influence. The research trends of current faculty members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from historical and philological studies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politic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at Leiden University. The undergraduate program spans three years, combining language proficiency with in-depth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Graduate programs, managed by the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LIAS), offer both one-year and two-year tracks,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study and conduct research in Korea.

Finally, the paper envisions the future of Korean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considering the program's potential for growth and adaptation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global interest in Korea.

Key Words : Korean Studies,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Academic history